

# 2005년 '올해의 책' 베스트 10

'올유년을 각성시킨 양서들'

'올해의 책' 에 《강의 - 나의 동양고전독법》

'올해의 책' 이라고 해서 2005년 한 해의 이성과 감성, 그것만을 제본한 것은 아니다. 연도와 세월을 뛰어넘은 범용의 성찰이 '올해의 책' 엔 들어 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가장 최근의 열두 달을 마감하는 서물 書物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 삼라만상과 인간 군상이 겹고 틈에 대한 다채로운 관찰. 그런 것이 활자와 그림을 통해 술한 시간 속에 사람들과 공명할 때 비로소 책으로서 제값을 한다. 그렇다면 지난 365일 동안엔 그런 책이 세상의 뇌리에 어떤 각성과 삶의 충족을 선사했는가. 굳이 '올해의 책' 을 고르느라 각계 인사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자문을 구한 것은 이를 식별하기 위함이다.

〈출판저널〉은 모처럼 큰 맘먹고 일을 벌여봤다. 매월 기자들 스스로 '이달의 책' 을 고르느라 진땀을 흘렸으나,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호엔 언론과 미디어, 출판, 저술 등 각 분야에서 역할이 분명한 서른다섯 분에게 그 수고를 안겼다. 지은이의 인격적 브랜드와 본문의 메시지가 공합을 이루며 신선한 지적 깨우침을 안겨주어설까. 앙케트에 응한 분들 가운데 다수가 신영복의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을 '2005 올해의 책' 으로 추천했다.

김명남 알라딘 편집장 같은 이는 "좋은 필자의 힘이 이토록 대단한 것임을 단번에 증명한 책이며, 만듦새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고 앙케트에 거론된 나머지 책들이 그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단지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을 거론한 이들이 조금 많다는 것일 뿐, 모두 '올해의 책' 으로 하등 흠잡을데 없는 것들이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를 비롯, 장하준·정승일의 《왜도난마 한국경제》, 안병수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황우석·최재천의 《나의 생명 이야기》, 리영희의 《대화》,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최재천·도정일의 《대담》, 김위찬의 《블루 오션 전략》, 김별아의 《미실》 등이 《강의》와 함께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 들었다. 이들은 그러나 세간의 베스트셀러와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들이다. 독서시장의 이른바 '트렌드'와는 별개다. 작위적인 '책읽기'를 상회하는, '책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론이 건재하는 한, 제대로 대접받아 마땅한 그런 책들이다.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 대해 서울신문 임창용 기자(문화부 차장)는 "오지여행가로 알려진 저자가 긴급구호요원으로 변신해, 비교하고 경쟁하는 메마른 세상 넘어 세계 곳곳에서 사랑하고 나누는 눈물겨운 세상 이야기가 감동적"이라고

추천의 변을 남겼다. 교보문고 프랜드숍을 운영하는 출판칼럼니스트 최준영 씨는 “책과 글이란 관념으로 쥐어짜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바로 책이고 글”이라며 “더구나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는 삶이라면 더욱 값진 것”이라고 이 책의 의미를 한껏 높이 샀다. 인터넷서점의 대표주자격인 YES24의 전상우 대표 역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연대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라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장하준·정승일의 《괘도난마 한국경제》는 그 논지를 두고 기왕에 말이 많은 책이다. '책읽는사회운동본부'의 안찬수 사무국장은 일단 “박정희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이 책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점이 돌출하게 됐다”고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임창용 기자는 “저성장·저투자·고용불안 등 한국경제의 문제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 때문이며, 고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을 쉽고도 흥미롭게 펼쳤다”고 평했다. 출판사 자음과모음 편집부의 박경미 과장은 “대부분 빈약하거나 너무 어렵거나, 양자택일밖에 없는 수많은 경제서들에 비해 단연 돋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과회사 간부 출신인 안병수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도 한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책. 그러나 알라딘의 김명남 편집장은 “선정적이되 결코 허술하거나 주의주장만 난무하는 책이 아니다”면서 “책이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기도 했다. 특히 매일경제 허연 기자는 “인간은 자연을 떠나면서 또다시 불행해졌다”며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멀리 왔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새삼 이 책의 의미를 무겁게 매겼다.

황우석·최재천의 《나의 생명 이야기》는 내용뿐만 아니라 지은이들의 사회적 지명도에 힘입어 주목을 받은 책. 이주향 수원대 교수는 “과학자들이 보는 생명이야기는 생의 토대라는 점에서 한번쯤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나름대로 해석했다. YES24의 전상우 대표는 “2005년도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명인 황우석 교수와 복제 문제를 둘러싼 생명의 가치가 오버랩되는 책”이라며 “시의성이란 측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올해의 책”이라고 추천했다.

리영희의 《대화》 역시 사유와 독서를 즐기는 많은 사람

## ‘관계론’으로 ‘개별’의 시대를 가르치다

‘올해의 책’, 《강의 - 나의 동양고전독법》

양케트 패널, ‘주례사 비평’ 아닌, 진지한 호평 한목소리

《강의나의 동양고전독법》은 근대사의 구성 원리가 근본에 있어서 ‘존재론’임에 비하여 동양의 사회구성 원리는 ‘관계론’이란 설정에 텍스트의 근간을 두고 있다. 성공회 대학교에서 ‘고전강독’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강좌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강의》는 이성과 지식에 관심을 둔 모든 사람들의 필독서가 됐다.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는 “왜 우리 시대에 고전을 읽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며, 좋은 고전 해설서의 기준을 한 단계 높여 놓은 책”이라고 그 까닭을 밝혔다.

《강의》의 저변을 이루는 메시지는 ‘관계론’적 우주관이다. 저자 신영복 교수는 “근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자본의 운동 원리가 관철되는 체계이며, 근대사회의 사회론이란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 인식을 전제한 다음 개별 존재들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러나 관계론적 구성 원리는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 형식이 아님을 그는 설파하고 있다. ‘개별’에서 나아가 관계망으로 존재하는 것이야말로 동양적 세계관의 핵을 이룬다는 게 그의 통찰이다.

서울신문 임창용 기자는 이 책을 두고 “동양 고전을 서구의 존재론적 사고와 대비되는 관계론적 사고로 해석하며 강의하듯 풀어나감으로써 고전읽기의 새로운 모미를 주고 있다”고 느낌을 전했다. 반디앤루니스 김종화 이사는 “‘관계론’의 입장에서 제각각 사상에 대해 재해석하는 모습이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다”며 “하긴 신영복의 세상보기는 늘새롭고 신선한 그 무엇이 있다”고 말했다.



들에게 사랑받은 책이다. 전상우 대표는 특히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하고 있으면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며 “이제 더이상 이런 학자나 지식인이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것 같아 더욱 소중한 책”이라고 숙연해하기도 했다.

진중권의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도 저자 특유의 내공과 직관이 돋보이는 책. 반디앤루니스 김종화 이사는 이 책을 두고 “딱딱한 주제들에 대한 신나는 고찰. 상상력이 곧 힘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저술가 정여울 씨는 “예술분야의 책들은 독자층에 한계가 있는 편인데, 진중권은 미학 내지는 인문학이라는 소재를 끌어들이면서도 읽히게 만들었다”고 후한 평을 가했다.

최재천·도정일의 《대담》은 국내의 대표적인 두 지성이 보여주는 깊이있는 성찰을 맛보게 한 책이다. 정여울 씨는 이 책에 대해 “텍스트의 구성과 전개에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방식을 선보였다”고 했다. 다름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대표하는 지식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의 향연을 벌인다는 점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위찬의 《블루 오션 전략》은 ‘블루 오션’이란 용어를 2005년도의 시책말로 만든 책이다. 알라딘 김명남 편집장은 “‘블루 오션’이 노트북 이름이 되질 않나, 경영·자기계발서에 보통 명사처럼 자리잡질 않나, 사실은 기업경영 전략에 가까운 것으로서 널리 읽힐 까닭이 없는데, 그야말로 참신한 경제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었다고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며 이를 두고 “가히 블루 오션 열풍”이라고 표현했다.

“2005년엔 두드러진 소설이 없었다”는 평단의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나마 올해 가장 눈에 띈 것이 김별아의 《미실》이다. 이주향 수원대 교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고대의 여인을 불러냈다”고 했으며, 김종화 이사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올해 최고의 한국소설”이라고 극찬했다. 프랜드숍의 최준영 씨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구호’에서 ‘사실’로 변화시켜 준 책”이라며 “우리 역사에서 추출해낸 소재도 얼마든지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들기도 했다. **한문**

신 교수 스스로는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하는 것이 관계론적 구성 원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책의 내용은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를 재조명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된 것”이라며 특히 “고전 강독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의 당면 과제를 재조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의 표현처럼 ‘미래로 가는 길을 오래된 과거에서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강의》로부터 독자들이 얻어낼 키워드인 셈이다.

《강의》를 ‘올해의 책’으로 꼽은 <출판저널> 앙케트 패널 가운데도 그런 ‘과거를 통한 미래와의 대화’에 공감을 표하며, 이 책의 값어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 “동양고전을 쉽고 인상적으로 기술하여 현대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조명하려는 시도가 좋다”는 반응이었다.

책세상의 문선휘 편집팀 과장은 “한국사회에서 고전 읽기는 계몽적, 고답적 읽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편”이라며 “그래서인지 요즘 대학 교양강좌 중에 고전 읽기가 꽤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느끼는 고전의 이미지는 여전히 낡고 까다롭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책은 고전을 읽게 만드는 방법으로 거의 반강제적 교육이라는 해법

만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 내용 이해가 아닌 성찰적 관점에서 고전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문 과장의 평가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열렬한 리필에서도 보듯, 그들에게 맞는 방법만 찾는다면 젊은 세대들이 고전에 열광하는 날도 머지않아 찾아올 듯하다”고 《강의》의 서지적 가치를 규정하기도 했다.

교보문고 프랜드숍을 운영하는 출판칼럼니스트 최준영 씨도 표현만 다를 뿐 비슷한 맥락의 호평을 가했다. 그는 “《강의》는 동양의 고전을 통해 근대와 탈근대 논쟁의 핵심을 짚어낸 책”이라고 나름대로 평가하며 “주체적 고전읽기의 중요성과 고전읽기의 새로운 의미를 일깨워준 보기 드문 양서”라고 말했다. YES24 전상우 대표 역시 “동양 고전 일반에 대한 입문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기존 해설서에서 보기 힘든 사회학적 비전이 돋보인다”고 일독을 권하기도 했다.